



기본 정서를 유도하는 영상의 선정과 정서의 체계적 이해를 위한 탐구

Selecting Film Excerpts Optimal for Eliciting Basic Emotions and the Systematic Understanding of the Evoked Emotional Experiences

저자 (Authors)	이승조, 최남도 Seung-Jo Lee, Nam-Do Choi
출처 (Source)	한국방송학보 23(3) , 2009.5, 205-246(42 pages) Korean Journal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Studies 23(3) , 2009.5, 205-246(42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방송학회 Korean Association for Boarding & Telecommunication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1198769
APA Style	이승조, 최남도 (2009). 기본 정서를 유도하는 영상의 선정과 정서의 체계적 이해를 위한 탐구. 한국방송학보 , 23(3), 205-246
이용정보 (Accessed)	서울대학교 147.46.182.*** 2020/02/15 22:09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기본 정서를 유도하는 영상의 선정과 정서의 체계적 이해를 위한 탐구*

이승조**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부 조교수

최남도***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부 박사과정

본 연구는 기쁨, 슬픔, 분노, 공포 등 네 가지 기본 정서를 유도하기에 적절한 영상물을 선정하고, 그 영상물 시청을 통해 발현된 정서를 간략하면서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살펴보았다. 한국 문화적 배경에 맞는 영상물을 선정하기 위하여 먼저 약 90여 편의 한국 영화들로부터 각 정서당 여섯 개씩, 총 24개의 영상물을 수집했다. 총 71명이 참가한 반복 측정 실험설계를 이용하여 24개의 영상물들이 기본 정서를 불러일으킨 강도와 순수성을 평가한 후,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영상물을 각 정서당 두 개씩 최종 선정했다. 최종 영상물 선정의 유효성을 평가한 다음, 영상물 시청을 통해 발현된 기본 정서의 차별성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정서 유인가(emotional valence)와 접근-회피 동기(approach-

* 이 논문은 2009년도 중앙대학교 우수연구자 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 ijoylee@cau.ac.kr

*** refusenresist@hanmail.net

avoidance motivation)의 조합이라는 새로운 이론적 시도를 적용했다. 연구결과는 정서 유인가와 접근-회피 동기의 조합으로 기본 정서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이해할 수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어 새로운 정서 이론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주제어 : 영상물, 기본 정서, 정서 유인가, 접근-회피 동기

1. 연구배경 및 목적

영화 등에서 발췌한 영상물을 자극물로 이용하여 정서 반응(emotional response)을 유도하는 실험 연구가 시작된 지는 오래되었지만(Averill, 1969; Brown, Corriveau, & Monti, 1977), 비교적 최근에 와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Christie & Friedman, 2004; Kreibig, Wilhelm, Roth, & Gross, 2007; Mauss, Levenson, McCarter, & Wilhelm, 2005). 실험 연구에서 정서 반응은 주로 정서적 사건에 대한 상상, 얼굴 근육 조정을 통한 표현, 사진이나 영상물 등을 통해 유도한다. 그 중에서 영상물의 이용은 개인의 차별적 경험의 간접이 적으면서도 충분한 크기의 정서를 유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최근 정서 연구자들은 영상물의 이용을 선호한다. 한편 이러한 현상은 다양하고 복잡한 정서적 경험을 소수의 원형으로 범주화하고 그러한 범주화를 통해 정서를 체계적으로 연구하려는 노력과 연계된다.

정서는 매우 복잡한 현상으로 그 연구방법 또한 다양하게 존재한다. 가령 리틀(Little, 1988)이나 스텐(Stearn, 1988)과 같은 일단의 연구자들은 정서적 경험의 의미가 역사적 혹은 지리적 차이에 따라 어떻게 변용되는지에 대해 관심을 기울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과학적 접근 방법을 이용하는

연구자들은 복잡한 정서 사건들을 분류하여 공통성을 찾아내고, 다양한 정서 경험들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기제를 찾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과학적 접근 방법 중 하나인 개별 정서 이론(discrete emotions theory)은 기쁨, 슬픔, 분노, 공포와 같은 몇몇 정서들이 분류의 틀을 제공하는 원형(prototype)이라고 간주한다(Lazarus, 1991; Izard, 1977). 이들을 흔히 기본 정서(basic emotion)라고 일컫는데, 개별 정서 이론은 기본 정서가 시공간을 초월하여 보편적으로 존재하는지에 대해 연구의 큰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Ekman, 1992). 정서 원형의 보편적 존재가 보편성 탐구를 통해 사물과 현상을 이해하고 설명하고자 하는 과학적 접근 방법에 설립 근거를 제공하고, 그를 통한 이론적 발전과 구축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기본 정서의 보편성을 찾는 데 방법론적으로 중요한 요건은 개인들에게서 공통된 정서 경험을 유도하는 것이다. 그 효과적인 방법으로 정서 연구자들은 영상물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다.

하지만 영상물을 이용한 개별 정서의 보편성 탐구도 항상 성공적인 것은 아니다(Fernández-Dols, Sánchez, Carrera, & Ruiz-Belda, 1997). 그 이유로 추정할 수 있는 것들은 첫째,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목표로 정한 개별 정서를 이끌어 내기 위해 각기 다른 영상물들을 이용했다(이영창 · 장은혜 · 정순철 · 손진훈, 2007; Britton, Taylor, Berridge, Mikels, & Liberzon, 2006; Kreibig, et al., 2007; Waldstein, et al., 2000). 연구자들은 편의성이나 접근성 등에 의해 자극물을 선택하기 쉽다. 이와 관련된 둘째 이유는 기존 연구에서 이용된 영상물들이 목표 정서를 얼마나 순수하게 이끌어내고 있는가 하는 의문에서 찾을 수 있다. 정서란 흔히 복합적인 상태로 드러난다. 예컨대 자식이 가벼운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그 상처를 보는 부모는 슬픔과 동시에 큰 사고가 아니어서 다행이라는 기쁨을 느낄 것이다. 많은 기존 연구들은 이용된 자극물들이 이런 복합적인 상태를 배제하고, 개별

정서의 순수성을 담보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예, Britton, et al., 2006; Waldstein, et al., 2000). 이러한 사실은 개별 정서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표준화된 영상물들을 찾기 위한 노력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먼저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한국적 배경과 맞는 영상물들을 찾기 위하여 기획되었다.

본 연구의 두 번째 목적은 개별 정서 연구에 적합한 영상물들을 선정한 다음, 그 영상물들을 시청할 때 느끼는 정서적 경험들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이론적 토대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과학적 접근 방법 중 개별 정서 이론 외에 또 다른 주된 분야인 정서 차원 이론(emotional dimension theory)을 도입하여 시도했다. 정서 차원 이론은 분류보다는 정서 경험에 근본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기제를 밝히려고 시도하며, 그에 따라 정서를 몇 개의 주요 차원으로 설명하고 예측한다(Cacioppo, Gardner, & Bernston, 1999; Lang, Bradley, & Cuthbert, 1997). 정서 경험을 구성하는 주요 차원으로는 흔히 정서 유인가(valence)와 각성(arousal)이 거론된다. 정서 유인가는 어떤 정서적 경험이 긍정적(positive)인가 혹은 부정적(negative)인가 하는 구분을 의미한다. 각성이란 정서 경험의 강도(intensity)를 구현하는 개념이다. 기존 정서 차원 이론에서는 정서 유인가와 각성의 조합으로 개별 정서들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하려는 노력들을 기울여 왔다(Russell & Feldman Barrett, 1999).

여기에서 본 연구는 보다 발전적 논의를 위해 정서 유인가와 각성 외에 기본 정서들을 더욱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또 다른 차원에 대한 고찰을 시도했다. 이는 정서 경험의 기저에서 작용하고 있는 근원적 동기(fundamental motivation)에 관한 것이다. 정서 이론가들은 정서 경험은 생존을 위한 근원적 동기의 구현이라고 주장했다(Cacioppo, et al., 1999). 예를 들어, 배우자나 식량 같은 것들을 얻기 위해 접근하거나 위협스러운

대상으로부터 회피하는 행위는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다. 정서는 이러한 행위를 준비하는 과정이나 행위와 동반되어 경험하게 된다. 정서적 경험은 생존을 위해 환경으로부터 유입되는 정보를 처리하는 기능을 하며, 그를 통해 한 개체는 앞으로 나아가거나 뒤로 물러나게 된다. 정서 발현의 근저에는 생존이라는 근원적 동기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서 발현에 수반된, 앞으로 나아가거나 뒤로 물러나고자 하는 근원적 동기를 측정 한 후, 정서 유인가와 조합하여 기본 정서를 체계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새로운 틀이 가능한지 모색하고자 했다. 기본 정서를 체계적으로 이론화하는 작업은 과학적 접근 방법을 통한 정서 연구를 진일보시키고, 또한 미디어를 통해 매개된 정보의 처리과정에서 정서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는 데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 문헌연구

1) 기본 정서의 정의

정서 연구자들마다 원형으로 분류한 기본 정서들은 다소 차이를 보이지만, 그 중에서도 기쁨(joy), 슬픔(sadness), 공포(fear), 분노(anger)가 공통적으로 많이 거론된다(Epstein, 1984; Frijda, 1986; Lazarus, 1991; Turner & Ortony, 1992). 특히, 서로 다른 언어 문화권에서 정서 표현 단어들을 위계적 분석을 통해 범주화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상기의 정서들이 문화적·지리적 차이를 초월하여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셰이버와 동료들은 영어에서 사용되는 정서 단어들을 분석하여, 사랑, 기쁨, 놀람, 슬픔, 공포, 분노 등으로 범주화되는 것을 관찰했다(Shaver, Schwartz, Kirson, & O'Connor, 1987).

정서 단어들을 범주화시키는 방식을 이용한 후속 연구를 살펴보면, 이탈리아어에서 사용된 정서 단어들은 사랑, 기쁨, 놀람, 슬픔, 공포, 분노, 동정 등으로 범주화되었고, 중국어의 정서 단어들은 기쁨, 분노, 슬픔, 슬픈 사랑, 공포, 수치심 등으로 범주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Shaver, Wu, & Schwartz, 1992). 이준웅·송현주·나은경·김현석(2008)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어의 정서 단어들은 기쁨, 긍지, 사랑, 분노, 공포, 연민, 수치, 좌절, 슬픔 등 9개의 정서로 분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들을 살펴보면 기쁨, 분노, 슬픔, 공포는 문화적·지리적 차이를 넘어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4개 정서를 기본 정서로 설정했다.

기쁨, 슬픔, 공포, 분노를 본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한 다음, 기존 문헌에서 나타난 네 정서의 개념적 정의와 특징을 살펴보았다. 기쁨, 슬픔, 공포, 분노라고 하는 것은 언어적 표현이며, 그 언어적 표현은 시공간의 차이를 반영한다. 가령 영어의 'joy'는 한국에서 기쁨으로 흔히 번역되지만,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어감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시공간을 넘어서 존재하는 기본 정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언어적 표현이라는 외피 안에 있는 핵심적 개념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이는 지리적·문화적·역사적 차이를 상쇄하고 나타나는 정서의 원형을 알기 위한 기초 작업이 된다. 기본 정서가 유도되는 상황적 맥락과 정서 표현의 특징을 중심으로 각각의 개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기쁨은 흔히 정서 연구에서 행복(happiness)과 구분 없이 사용되거나 강도가 강한 행복으로 간주된다(Lazarus, 1991). 본 연구에서 행복 대신에 기쁨을 기본 정서로 정한 것은, 행복이란 단어의 의미 해석이 문화적·개인적 차이를 많이 반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Inglehart & Klingemann, 2000). 기존 문헌은 기쁨을 목표가 성취되는 과정에서 상당한 진전이 이루

어질 때 경험한다고 묘사했다(Ortony, Clore, & Collins, 1988). 기쁨은 중요한 목표가 달성되었을 때 느껴지는 긍정적 정서인데, 고유한 심리적·육체적 표현을 동반한다. 기쁨은 춤을 추거나, 손뼉을 치고, 크게 웃는 등 일견 의미 없어 보이는 표현을 동반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Darwin, 1965). 의미 없어 보이는 이 표현들은 생존에 대한 위협으로부터의 자유를 표현하는 것으로 추측된다(Frijda, 1986).

슬픔은 얻고자 했던 대상을 상실하는 상황에서 생성된다(Frijda, 1986; Lazarus, 1991). 슬픔은 잃어버린 대상이 한 때는 돌이킬 수 있었다고 판단될 때 느껴지며, 애초부터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체념이라는 정서를 느끼게 된다(Ellsworth & Smith, 1988). 슬픔에 잠긴 사람들은 외부세계로부터 도피하려는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관찰되었다(Tomkins, 1963). 슬픔에 빠진 사람들은 방문을 닫고 이불을 뒤집어쓰고 외부와 자신을 격리시키려 한다(Frijda, 1986). 볼비(Bowlby, 1980)는 이런 도피적 행동을 방어적 배척(defensive exclusion)이라고 해석했다. 슬픔이 몰려오면 사람들은 그 원인이 되는 사건이나 대상으로부터 자신을 고립시키려고 한다. 그 결과 슬픔은 외부로부터의 정보 유입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공포는 위협이 곧 닥쳐올 것으로 감지되는 상황에서 경험하는 것으로 묘사되었다(Lang, Davis, & Öhman, 2000; Lazarus, 1991).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 ancient/1984)는 공포는 미래에 닥칠 파괴적이고 고통스러운 악을 현재에 정신적으로 형상화하는 것이라고 하여, 공포의 특징으로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하여 공포의 반응은 흔히 2단계로 나뉘는데, 방어단계이론(the defense cascade theory)에 따르면 공포를 느끼는 1단계는 아직 위협의 대상이 불확실한 단계다(Lang, et al., 1997). 위협적인 존재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되면 사람들은 일단 활동을 억제하고, 경계하며, 그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한다. 하지만 위협이 확실하

다고 판단되는 2단계에서는 눈을 감거나 몸을 웅크리거나 하는 방어 자세를 취하거나 도망치게 된다.

분노는 비난받아 마땅한 대상을 공격하기 위한 행동성향이 표출되는 상태로 간주되었다(Frijda, 1986; Lazarus, 1991). 분노는 정당성이 없는 장애물 때문에 강하게 원하던 목표나 자아 표현의 어떤 측면이 제한당했을 때 느끼는 강렬한 정서다(Izard, 1977). 분노는 싸움이나 공격과 연관되어, 환경으로부터 자신의 안녕을 해치는 방해물을 제거하기 위한 강렬한 힘을 모아 정신적·육체적으로 준비시키는 역할을 한다. 화가 나면 이를 막물거나, 상대방을 노려보는 등 적대적인 반응을 표현하는 것은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Darwin, 1965).

이와 같은 기본 정서가 수많은 정서적 사건이나 경험의 원형, 즉 분류의 기준이 되기 위해서는 내적인 통일성과 외적인 차별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된 주요 가설 중 하나는 기본 정서별로 반응 일관성(response coherence)이 있다는 것이다(Mauss, et al., 2005). 반응 일관성 가설은 기본 정서를 경험할 때, 심리적 체험, 행위적 표현, 생리적 반응은 일정한 형태나 양식을 띠며, 상호 구별이 가능한 유형이 있다고 추정한다. 예컨대 반응일관성 가설은 슬픔의 경험이 공포의 경험과는 구별되는 일관된 반응이 있다고 예측한다. 일관성에 대한 이러한 연구 노력들은 일정한 성과를 거두기는 했지만(Ekman, Levenson, & Friesen, 1983),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Russell, 2003). 그 원인은 이론적 측면에서도 찾을 수 있지만, 방법론적인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 정서 경험은 다양하고 복잡한 현상이기 때문에 상황적 요인의 간섭, 즉 맥락효과가 많이 발생하여 기본 정서의 고유한 유형과 양식을 찾는 데 어려움이 존재한다. 여기서 관건은 순수한 형태의 기본 정서를 연구 대상자들에게 최대한 동일한 상태로 느끼게 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그러한 방법의 일환으로 영상물의 이용에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2) 정서 연구와 영상물의 이용

기존 실험 연구에서 정서를 이끌어 내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정서적 사건 상상, 얼굴 근육 조정, 사진 혹은 영상의 이용 등을 들 수 있다. 정서적 사건 상상은 과거의 경험을 회상하게 하거나(Ekman, et al., 1983), 자신에게 생길 수 있다고 여겨지는 정서적 상황을 떠올리도록 지시하는 방법이다(Schwartz, Weinberger, & Singer, 1981). 이 방법은 피험자들에게 과거나 미래에서 목표로 정한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건을 스스로 선택하여, 그 상황과 관련된 느낌이나 신체적 반응을 생생하게 상상하도록 유도한다(Schwartz, et al., 1981). 이 방법은 서로 다른 개인적 경험이나 편차가 있는 개인의 상상력에 의존하게 된다는 약점이 있다. 따라서 개인마다 정서를 일으키는 상황이 달라, 기본 정서의 공통적인 성질보다는 정서 사건에 관련된 여러 가지 맥락의 간접 현상이 심하게 나타날 우려가 있다.

얼굴 근육조정은 얼굴 근육을 움직여서 정서 반응을 표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피험자들에게 기본 정서의 표현과 연관된 것으로 알려진 얼굴 근육들을 수축시키도록 지시한다(Ekman, et al., 1983). 예컨대, 기존 문헌에 나타난 슬프거나 화날 때 짓는 얼굴 표정을 만들도록 지시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무엇보다 얼굴 근육의 움직임만으로는 목표로 정한 정서 경험을 충분히 불러일으켰다고 확신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정서 경험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사건을 동반하며, 그 상황적 대처가 정서 경험의 원천이 된다(Palomba & Stegagno, 1993). 구체적인 사건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 얼굴 근육의 변화만으로 충분히 정서적 경험을 이끌어 낼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사진을 이용하는 방법은 정서 경험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심상 정보가 담긴 사진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지만 하나의 사진에는 세부 상황에 관한

정보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 때문에 세부 맥락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사진만으로 의도한 정서 경험을 충분히 유도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기존 연구들은 기본 정서의 특징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해당 정서를 강도 높게 구현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Philippot & Chapelle, 2002). 하지만 사진으로 구현할 수 있는 정서의 강도에는 한계가 있다.

영상물의 이용은 앞에 소개된 방법들의 약점을 보완해 주는 장점들이 있는데, 우선 수용자들이 영상물에 담겨 있는 동일한 정서 사건에 노출된다는 점이다. 물론 동일한 사건에 노출되었어도 그 경험은 개인의 시청 태도나 몰입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몇몇 연구들은 영상물 이용의 타당도(validity)를 검토했다(McHugo, Smith, & Lanzetta, 1982; Philippot, 1993). 위의 연구들은 영상물의 이용이 의도한 정서를 다수의 사람들에게서 이끌어 내는지를 관찰했다. 그 결과 70~80%의 응답자들이 영상물들이 의도한 개별 정서와 일치하게 반응하여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입증했다(Gross & Levenson, 1995; Philippot, 1993). 또한 영상물은 수용자들에게 상황적 맥락을 충분히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선택하여 이용하면 의도한 정서를 강도 높게 체험하게 해준다는 장점이 있다(Mauss, et al., 2005).

그로스와 레벤슨(Gross & Levenson, 1995)은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정서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영상물을 찾아 제시했다. 이 영상물들의 이용이 보편화되지는 않았지만, 최근 상당한 정서 관련 연구들이 자극물로 채택하고 있다(Mauss, et al., 2005; Tsai, Levenson, & Carstensen, 2000). 영상물들 중 일부는 언어가 다른 독일에서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Hagemann, et al., 1999). 하지만 이 영상물들 중 대부분은 한국에서 그대로 사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가장 큰 걸림돌은 정서 경험상의 문화적인 차이이다. 기존 연구들은 정서 발현의 문화

적 차이를 꾸준히 보고했다(Russell, 1994). 예컨대, 마츠모토와 동료들은 정서 표현이 나타난 얼굴 사진을 이용하여 미국인과 일본인의 정서 경험 평가의 차이를 살펴보았다(Matsumoto, et al., 2002). 그 결과 미국인이 일본인보다 외적 정서표현이 강하게 표현된 사진을 본 경험을 더 강도 높게 평가한 반면, 내적 정서경험을 추측하게 해주는 사진을 본 느낌은 일본인이 미국인보다 더 강도 높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Matsumoto, et al., 2002).

이는 정서적인 표현을 외부로 잘 드러내지 않는 동양인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통해 그로스과 레벤슨(Gross & Levenson, 1995)이 제시한 영상물들은 같은 동양 문화권인 한국에서는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상기 연구에서는 즐거움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예로 영화 <셀리가 해리를 만났을 때>의 한 장면을 제시하고 있다. 제시된 영상물은 여주인공이 음식점에서 여자들이 성행위 시에 가짜로 성적 흥분을 표현하는 것을 흉내 내는 모습을 보여준다. 서양에 비해 성적인 표현을 외적으로 드러내는 데 익숙하지 않은 한국인들에게 이 장면을 보여준다면 한국인들은 즐거워하기보다 당황하거나 민망하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한국에서 영상물을 이용한 정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영상물의 선정 작업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최근 한국에서도 영상물을 이용한 정서 관련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는데(김정현 · 이명천 · 김지은, 2008; 양운 · 성충모, 2001; 이영창 · 장은혜 · 정순철 · 손진훈, 2007), 이러한 연구들은 제각기 한국의 영상물들을 취사선택하여 이용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기본 정서를 대표할 수 있는 한국 영상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추후 정서 관련 연구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작업이라고 판단된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했다.

연구문제 1 : 순수한 형태의 기본 정서(기쁨, 슬픔, 공포, 분노)를 이끌어낼 수 있는
한국 영상물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3) 기본 정서와 차원적 해석의 심화

기본 정서 연구에서 개별 정서의 차별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론적 고려도 중요하지만, 그 차이를 체계적으로 예측하고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틀도 필요하다. 과학적 접근 방법을 이용하는 정서 연구는 크게 개별 정서 이론과 정서 차원 이론으로 구분된다. 앞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개별 정서 이론은 몇몇 주요 정서들을 분류의 근거로 삼으며, 차별성을 초래하는 다양한 인지적 요소들을(appraisal factors) 조사한다. 반면 정서 차원 이론은 정서를 더욱 간략하게 분류하여 그 기능적 원천과 연관된 차원들을 탐구한다(Lang, 1988; Cacioppo & Gardner, 1999). 개별 정서 이론이 제시하는 정서 간 차별성을 이해하기 위한 인지적 요소들은 상당히 많은 변인들을 포함하여 복잡하게 설명되는 반면(Lazarus, 1991), 정서 차원 이론의 이용은 간략성의 법칙(parsimonious rule)이라는 측면에서 상대적인 장점이 있다. 기존 정서 차원 이론에서 상징하는 대표적인 요인들은 정서 유인가와 각성이다. 정서 유인가는 쾌-불쾌 혹은 긍정-부정으로 이어지는 연속선으로, 어떤 정서적 경험이나 사건은 그 연속선 위의 한 점으로 표시된다. 각성은 정서적으로 얼마나 활성화되었는가를 나타내는데, 흔히 흥분도로 표시한다(Lang, 1988). 일반적으로 정서 차원 이론은 정서 유인가와 각성을 개별 축으로 교직시키고 개별 정서들을 좌표의 한 부분에 위치시켜 설명한다. 예컨대, 기쁨은 각성 수준이 높은 긍정적 정서로, 슬픔은 각성 수준이 낮은 부정적 정서로, 공포와 분노는 각성 수준이 높은 부정적 정서로 표현한다(Lang, et al., 1997; Russell & Feldman Barrett, 1999).

하지만 최근 정서 유인가와 각성 외에 정서 발현의 근원을 나타내는 또 다른 차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이와 같은 관심은 주로 분노 관련 연구에서 제기되었는데, 이는 분노가 정서를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분류하는 방식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독특한 성격을 갖고 있는 데서 기인한다. 기존의 정서 차원 이론은 일반적으로 분노를 부정적 정서로 분류하여 공포와 유사한 위치에 배정했다(Russell & Feldman Barrett, 1999). 이러한 분류가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하여, 하몬-존스와 그의 동료들은 일련의 뇌파 연구를 통해 분노와 정서 유인가 차원과의 상관관계를 탐구했다(Harmon-Jones, 2004; Harmon-Jones, Sigelman, Bohlig, & Harmon-Jones, 2003). 기존의 뇌파 연구들은 두뇌를 좌반구와 우반구로 나누었을 때, 좌측 전두 활동(left frontal activity)은 긍정적 정서의 활성화, 우측 전두 활동(right frontal activity)은 부정적 정서의 활성화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보고했다(Davidson, 1995; Silberman & Weingartner, 1986).

그러나, 하몬-존스와 시겔만(Harmon-Jones & Sigelman, 2001)의 실험에서 화를 내도록 유도된 참가자들은 통제집단에 비해 좌측 전두 활동이 더욱 강하게 활성화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기존 뇌파 연구를 토대로 이 결과를 해석하면 분노는 긍정적인 정서로 분류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하몬-존스(Harmon-Jones, 2004)는 분노가 정서 유인가에 대한 자기 보고(self report) 측정에서 분명히 부정적으로 평가되었다고 보고했다. 이러한 결과는 긍정-부정으로 구분하는 정서 유인가와 전두 활동의 상관관계를 재해석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몬-존스(Harmon-Jones, 2004)는 좌측 전두활동과 우측 전두활동이 각각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의 활성화를 표출하기보다 정서 발현의 근원이 되는 동기부여체계(motivational system)의 활성화를 반영하는 것이 아닐까 추정했다.

과학적 접근 방법을 이용하는 정서 이론가들은 공통적으로 정서가 환경

에의 적응기능을 수행한다고 가정한다. 정서는 물리적·사회적 생존을 돕는 기능을 수행하여 환경으로부터의 도전과 기회들을 수용하도록 한다(Keltner & Gross, 1999). 인간이 주변 환경의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생존하기 위한 행위를 근원적으로 분류해 보면 접근과 회피의 연속선 위에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정서는 이 행위를 위한 준비단계 혹은 행위와 수반하는 정신적·육체적 반응이라는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정서 차원 이론은 식량을 구하거나 짝짓기와 같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행위는 접근할 것을 요구하며 이와 관련된 정서적 경험을 긍정적 정서라고 간주한다. 반면, 위험으로부터 회피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와 관련된 정서적 경험을 부정적 정서라고 가정한다. 즉 긍정적 및 부정적 정서를 접근-회피라는 근원적 동기의 발현으로 해석한다.

하지만 분노 연구는 분노가 긍정적 및 부정적으로 구분하는 정서 유인가로는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우며 접근-회피로 구성된 근원적 동기를 통한 보완적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드러낸다. 분노는 부정적 정서이지만 접근하려는 동기가 강하게 구현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탐구하기 위하여, 하몬-존스와 동료들은 실험 참가자들에게 화를 불러일으킨 다음, 화를 불러일으킨 대상을 알 수 있는 조건과 없는 조건으로 구분하여 비교했다(Harmon-Jones, Vaughn-Scott, Mohr, Sigelman, & Harmon-Jones, 2004). 그 결과 분노의 대상에 접근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에만 화가 난 참가자들의 좌측 전두 활성화가 증가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접근 동기가 발현되지 않으면 분노라는 정서의 특성이 나타나지 않으며, 분노라는 정서의 특성을 정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는 접근 동기의 발현 여부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이러한 주장은 다른 연구에서도 지지되었는데, 카버(Carver, 2004)는 테러 공격에 대한 반응에서, 접근 동기가 쉽게 활성화되는 개인들은 화를 내고 회피 동기가 강하게 활성화되는 개인

들은 공포를 느끼는 것으로 보고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리와 랭(Lee & Lang, 2009)은 정서 유인가와 각성의 조합보다 정서 유인가와 접근-회피 동기화의 조합으로 기본 정서를 개념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들은 성취와 연관되어 있는 기쁨은 대상을 향하여 접근하고자 하는 동기가 높은 긍정적 정서로, 슬픔은 원하던 대상을 잃고 외부와 단절하려는 성향이 있으니 접근을 중지하고자 하는, 즉 후퇴 동기가 약하게 발현된 부정적 정서로, 공포는 대상으로부터 회피하려는 동기가 강하게 발현된 부정적 정서로 개념화했다. 분노는 부정적 정서로 상황을 회피하고 싶은 동기가 활성화되지만, 또한 대상을 향하여 접근하려는 동기가 강하게 발현되고 있어 접근 동기와 회피 동기가 전부 활성화된 상태로 개념화했다. 리와 랭(Lee & Lang, 2009)은 이를 텔레비전 공익광고 연구에 적용하여 상기의 개념화가 영상물 시청에서도 적용될 수 있음을 보고했다. 예를 들면, 놀람반응(startle response)을 이용하여 분노에 전진 동기가 강하게 발현되고 있음을 관찰했다(Lee & Lang, 2009). 기존 연구에서 놀람 반응은 회피 동기가 활성화되었을 때 강하게 나타나는 반면, 접근 동기가 활성화되었을 때에는 억제되는 것으로 보고했다(Lang, et al., 1997). 상기 연구에서 분노, 공포, 슬픔은 전부 부정적 정서로 분류되었는데, 무섭거나 슬픈 공익광고를 시청할 때 놀람반응이 중성조건에 비해 크게 나타난 반면, 화를 돋우는 공익광고를 시청할 때에는 놀람반응이 중성조건에 비해 억제되는 것을 관찰했다. 이는 분노가 공포, 슬픔과는 달리 부정적 정서이지만 전진 동기가 발현되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준다. 한편 놀람반응은 공포 조건보다 슬픔 조건에서 약하게 나타나 공포와 슬픔 사이에 회피 동기 발현의 차이도 나타났다. 이 결과들은 정서 유인가와 접근-회피 동기의 조합으로 기본 정서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증거를 제시한다. 그런데 정서 유인가와 접근-회피 동기의 조합은 기존 정서 차원

이론에서 주요 요인으로 상정하였던 각성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가 각성을 정서 설명의 주요 차원에서 제외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각성은 개별 정서의 고유한 성질을 드러내는 요인보다는 다양한 정서적 경험을 단일한 단위에서 비교할 수 있는 개념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판단된다(Zillmann, 1991). 각성은 개별 정서 간의 고유한 차별성을 드러내기보다 단일한 기준에서 차별적 특징을 무시하고 비교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예를 들면, 각성 정도가 높은 공포와 각성 정도가 낮은 분노와의 비교 등이 가능하다. 또한 각성은 같은 정서 내에서의 비교도 가능하게 하여 각성 정도가 낮은 공포와 각성 정도가 높은 공포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등의 질문을 성립시킨다. 따라서 각성은 정서 유인가와 접근-회피 동기의 조합과 더불어, 정서의 심도 깊은 연구를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다. 본 연구는 정서 유인가, 접근-회피 동기와 각성을 포함하여 그 상호관계 속에서 개별 정서를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는 정서 연구의 새로운 모형을 만들어보고자 하는 궁극적 노력의 일부다. 그러한 모형을 태동시키기 위한 일차적인 작업으로 본 연구에서는 접근-회피 동기가 정서 유인가에 보완적인 차원이 될 수 있는지를 탐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기존 정서 연구에서도 접근-회피 동기와 유사한 요인에 대한 논의는 있었다. 대표적인 예가 지배성(dominance)이나 대처 가능성(coping potential)이다. 지배성은 어떤 상황을 내가 통제하고 있다고 느끼는지, 혹은 통제당하고 있다고 느끼는지의 정도를 나타낸다(Bradley & Lang, 1994). 대처 가능성은 어떤 상황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가 하는 느낌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상황이나 사건에 대한 통제 예측성이다(Roseman, Antoniou, & Jose, 1996). 지배성이 상황 내에서 느끼는 통제성을 의미한다면, 대처 가능성은 통제가 가능한가 하는 것을 예측하는 판단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통제가 가능한 상황에서 접근하려는 성향이 강화되고, 통제가 어려운 상황

에서는 피하려는 성향이 강화되기 때문에 지배성이나 대처 가능성은 접근-회피라는 근원적 동기를 상당히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접근-회피라는 근원적 동기를 개념화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가령 상황을 통제하고 있지 않다는 느낌이 들어도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동기는 생겨날 수 있다.

또한, 지배성이나 대처 가능성은 영상을 매개로 하는 정서 발현을 설명하고 예측하기 위한 요인으로 충분하지 않다. 영상물의 정서 경험은 실제 경험이 아니며 대리적 경험이기 때문이다. 질만은 이를 감정이입(empathy)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Zillmann, 1994). 영상물 시청에서 얻어지는 정서적 경험은 그 사건에 반응하거나 등장인물들의 감정표현에 동화되는 현상이라는 것이다. 이는 영상을 통한 정서 경험은 태생적으로 시청자의 통제가 불가능한 사건을 경험하는 것이다. 따라서 통제라는 개념만으로 정서 경험의 접근-회피라는 요소를 측정하기는 힘들다. 기존 연구에서는 뇌파의 상대적 활성화나 놀람반응을 이용하여 접근-회피 동기의 작용을 확인하였지만,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자기 보고 설문도 만들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접근-회피 동기를 측정할 수 있는 자기 보고 설문을 제시한 다음, 접근-회피 동기와 정서 유인가의 조합으로 기본 정서를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탐구했다. 이에 따라 두 번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이 설정했다.

연구문제 2 : 영상물 시청으로 발현되는 기본 정서는 정서 유인가와 접근-회피 동기의 조합으로 체계적인 분류가 가능할 것인가?

3. 연구방법

1) 영상물의 수집

연구에 사용된 영상물 수집은 본 연구의 저자들과 평소 영화에 관심이 많은 대학원생 1명(석사과정) 등 총 3명이 수행했다. 우선,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정보와 영화전문 웹사이트를 검색하여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을만한 영화들을 선정했다. 또한, 연극영화학부 학생들과 영화 동아리 학생들에게 지문을 구하여 기본 정서들(기쁨, 슬픔, 공포, 분노)을 유발할 수 있는 영화와 장면들을 추천받았다. 영상물 수집은 한국 영화만을 대상으로 하여, 외국 영화 시청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영어 능숙도, 번역 자막의 정확성, 내용의 문화적 차별성 등의 문제점들을 제거했다. 이를 통해 총 90여 편의 영화를 검토했다. 검토 과정에서 연구 대상이 된다고 판단되는 영화 장면을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수집했다. 첫째, 영화 장면이 정서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그 정서적인 내용이 기본 정서들로 구분하기가 용이한지 살펴보았다. 둘째, 한 장면 안에서 동일한 정서가 유지되어 편집 등 특별한 처치를 할 필요가 없는지를 검토했다. 영상물 수집에 걸린 기간은 2008년 7월부터 10월까지 약 3개월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검토 과정에서 기본 정서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여겨지는 장면들은 디지털 파일로 전환했다. 디지털화된 영상물들은 연구자들이 개별적으로 시청한 후, 내용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의견 교환을 통해 순수한 기본 정서를 유도해낼 가능성이 있다고 합의된 영상물만을 최종적으로 실험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 과정에서 21편의 영화에서 하나의 기본 정서당 여섯 개씩, 24개의 영상물이 선택되었다. 실험 영상물의 개수보다 영화 편수가 적은 것은 같은 영화에서 다른 기본 정서에 대한 영상물이 추출되었기 때문이다.

〈표 1〉 영상 자극물 목록

감정	영화 제목 (실험물 제목)	영화 시간	내용
기쁨 (Joy)	날아라 허둥구 (허둥구)	1:26:10~1:28:50 (2분 40초)	지능이 낮다는 이유로 무시당하던 주인공의 활약으로 경기에서 승리하고 기뻐함
	라디오 데이즈 (라디오)	0:29:25~0:32:10 (2분 45초)	라디오 드라마 성대모사 오디오선에 응모한 다양한 인물들의 재밌는 행태를 보여줌
	브라보 마이 라이프 (브라보 - 기쁨)	1:52:20~1:55:15 (2분 55초)	직장에서 무시당하던 인물들이 음악 공연을 하고 직장 동료들이 함께 기뻐함
	천하장사 마돈나 (마돈나)	1:46:45~1:49:15 (2분 30초)	주인공이 싸름 결승전에서 승리하고 동료들과 함께 환호하고 축하를 받음
	효자동 이발사 (이발사 - 기쁨)	1:49:25~1:52:15 (2분 50초)	다리를 못 쓰게 되었던 아들이 다시 걷게 되어 아버지와 자전거를 타며 즐거워함
	Mr. 로빈 꼬시기 (로빈)	1:40:40~1:44:10 (3분 30초)	주인공 남녀가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키스하는 장면
공포 (Fear)	기담 (기담)	0:27:05~0:30:25 (3분 20초)	등장인물이 병원 시체보관소에서 알 수 없는 존재에 의해 보관함으로 끌려들어감
	므이 (므이)	1:17:40~1:21:14 (3분 34초)	폐가에서 악령에게 쫓겨 다님
	아랑 (아랑)	1:00:30~1:03:55 (3분 25초)	악령에 사로잡혀 부인을 살해함
	장화 홍련 (장화)	1:43:15~1:46:00 (2분 45초)	계모가 죽은 아이의 방에서 귀신을 만남
	추격자 (추격자)	1:38:15~1:41:51 (3분 35초)	사로 잡혔다가 동네 가게로 도망친 여성이 가게에 들른 살인자에게 살해당함
	해부학 교실 (해부학)	0:50:35~0:53:20 (2분 45초)	의대 건물에 갇힌 한 여성이 시체보관실에서 악령을 만나는 장면
분노 (Anger)	가족 (가족 - 분노)	0:52:50~0:56:15 (3분 25초)	아버지가 폭력배에게 폭행을 당하고 딸 앞에서 모욕당함
	밀양 (밀양)	1:22:00~1:24:30 (2분 30초)	골목에서 한 어린 여성이 일방적으로 폭행당하는 것을 목격하지만 그냥 지나침
	브라보 마이 라이프 (브라보 - 분노)	1:38:10~1:41:50 (3분 40초)	은퇴를 앞둔 주인공이 마지막 공연을 준비하는 중에 젊은 직원이 방해함
	싸움의 기술 (싸움)	0:07:40~0:09:50 (2분 10초)	형사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주인공이 불량배에게 맞고 모욕당하는 장면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전태일)	0:38:35~0:40:55 (2분 20초)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노동부에 찾아가으나 공무원들로부터 무시당함
	효자동 이발사 (이발사 - 분노)	0:45:00~0:48:20 (3분 20초)	아들의 잘못으로 주인공이 가족 앞에서 대통령 경호실장에게 무릎 꿇고 맞음

감정	영화 제목 (실험물 제목)	영화 시간	내용
슬픔 (Sadness)	열한 번째 엄마 (엄마)	1:33:00~1:35:15 (2분 15초)	엄마의 죽음을 모르고 밥을 차렸으나 이내 엄마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됨
	가족 (가족-슬픔)	1:28:50~1:31:25 (2분 35초)	여주인공이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아버지를 추억함
	두 얼굴의 여친 (여친)	1:15:44~1:18:54 (3분 10초)	남자 친구가 자신을 희생하여 여자 친구를 살리고 죽어감
	마음이 (마음이)	0:28:15~0:31:10 (2분 55초)	살얼음이 언 강에 어린 여동생이 빠져죽는 장면을 목격함
	사랑해 말순씨 (말순씨)	1:23:15~1:26:25 (3분 10초)	주인공과 어린 여동생이 엄마의 죽음을 받아들이며 슬퍼하는 장면
	선물 (선물)	0:27:30~0:30:51 (3분 21초)	부인이 병에 걸려 시한부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됨

선택된 실험 대상 영상물은 <표 1>에 나타나 있다. <표 1>에서 시간은 영화의 상연 시간을 표시하여 그 장면을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기쁨 유발을 목표로 하는 영상물의 내용은 등장인물이 갈망하던 것을 획득하거나 성취하는 장면이 주로 선택되었다. 슬픔을 유도하는 영상물의 내용은 죽음 등으로 인해 사랑하는 대상을 잃게 되는 상황을 묘사하는 장면이 주로 선택되었고, 공포 영상물의 내용은 주로 등장인물이 정체를 알 수 없는 대상에 의해 쫓기거나 생명의 위협을 받는 장면으로 구성되었다. 분노 영상물은 등장인물이 비합리적거나 비도덕적인 폭력을 당하는 장면으로 구성되었다. 이와 같은 구성은 이전의 문헌연구에서 논의된 기본 정서별 정의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2) 실험 참가자

서울 소재 한 대학의 신문방송학 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이 진행되

었다. 총 71명의 학생이 실험에 참여하였고, 실험에 참여한 학생들에게는 대가로 추가 점수가 성적에 반영되었다. 실험 참가자들은 28명의 남성과 43명의 여성으로 구성되었으며, 평균 연령은 20.61($SD=1.42$)세였다. 참가자 중 설문에 이중 기입을 하거나 언어 이해의 어려움을 보인 외국인 학생 두 명은 분석에서 제외했다.

3) 실험 절차

실험은 강의실을 대여하여 실시되었고, 실험 집단은 10명 내외로 구성하였다. 실험 참가자들은 강의실에 도착하여 동의를 표하는 서명을 하고, 책상에 앉았다. 개인과 개인 사이에 최소한 책상 하나는 배치되도록 하여 참가자들 간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했다. 전원이 착석하였을 때 실험에 대한 안내와 주의 사항이 전달되었다. 실험 동안 참가자들은 총 25개의 짧은 영상물을 보게 될 것이며 각각의 영상마다 평가를 하게 된다고 알려주었다. 매 영상물 앞에는 약 15초간 검정화면이 보이는데, 이것을 보는 동안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과 느낌들을 지우도록 노력하라고 지시했다. 영상물을 보고 난 후 영상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평가를 할 때는 길게 생각하지 말고, 즉시 떠오르는 느낌이나 생각대로 적으라고 안내했다.¹⁾ 영상물을 보는 동안 소등했으며, 영상물은 강의실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을 통해 상영했다.

영상물 상영의 첫 번째는 중성 조건으로 선택된 컬러바를 상영했다 (Gross & Levenson, 1995). 컬러바는 여러 색의 굵은 선으로 화면을 채워 보여주는 것으로 화면의 색조를 조정하기 위해 이용된다. 컬러바의 상영은

1) 설문에 걸린 시간과 검정화면을 포함하면 영상물 상영 사이의 간격은 약 25초간 소요되었다.

실험 상황에 참가자들이 익숙해지도록 하는 효과도 고려한 것이다. 컬러바를 보고 난후 영상을 본 느낌과 생각을 설문지에 적도록 했다. 그 다음 설문에 관한 질문을 받고 계속해서 기쁨, 슬픔, 분노, 공포 유발을 목표로 하는 24개의 영상물을 보여주었다. 하나의 영상물이 제시되고 난 뒤에는 실내를 밝게 하여 설문에 응하도록 했다. 참가자들은 25개의 영상물을 전부 보고 난 후, 마지막에 인구통계학적 정보를 제공했다. 그 후 실험자는 참가자들에게 감사를 표시하고 집단적으로 퇴실하도록 했다.

반복측정에서 나타나는 잔여효과를 통제하기 위하여 각각의 영상물들을 보여주는 순서의 배치를 달리하여 네 개의 다른 제시 순서를 창출했다. 네 개의 다른 제시 순서를 결정하는 데 있어 ① 시작과 끝에 네 개의 다른 정서를 목표로 하는 영상물이 배치되도록 하였으며, ② 동일한 정서의 영상이 연속적으로 제시되지 않도록 주의했다. 실험 참가자는 무작위로 그 순서에 배당하였으며, 각 제시 순서당 2번의 실험이 실시되어 총 8번의 실험이 시행되었다.

4) 설문지 구성

설문지는 각 영상마다 기본 정서에 대한 질문, 정서 유인가와 각성에 관한 질문, 접근-회피 동기에 관한 질문, 몰입에 관한 질문으로 구성되었으며 전부 9점 척도다. 기본 정서, 정서 유인가, 각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일곱 개의 형용사(기쁨, 슬픔, 무서운, 화난, 즐거운, 불쾌한, 흥분되는)를 제시하였으며, 영상을 보면서 느꼈던 정도를 표시하도록 했다(① 전혀 그렇지 않다-⑨ 매우 그렇다). 접근-회피 동기의 질문은 세 개로 구성하였는데 각각 개입성, 대처성, 행동성의 측면을 측정하도록 했다. 개입성은 영상에 담겨 있는 사건에 개입하고 싶은지를 측정했다(① 상황 속으로 들어가고

싶다-⑨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 대처성은 영상에 일어난 사건에 대처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드는지를 측정했다(① 상황에 대처하기 힘들다-⑨ 상황에 대처하기 쉽다). 행동성은 상황에 대해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드는지를 측정했다(① 무언가 할 수 있다-⑨ 전혀 할 일이 없다). 세 문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입성은 영상물 시청자의 입장에서 상황에 다가가거나 멀어지고자 하는 느낌을, 대처성은 그러한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느껴지는 정도를, 행동성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나서고 싶은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영상물 시청을 통한 간접 경험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접근-회피 동기의 여러 측면들을 대표하고 있다. 개입성과 행동성은 역코딩하여 분석했으며, 따라서 접근-회피 동기 측정 결과에서 높은 숫자는 접근 동기의 활성화를, 낮은 숫자는 회피 동기의 활성화를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영상물 시청에 주의를 기울인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몰입 정도에 관한 질문이 제시되었다(① 전혀 몰입되지 않았다-⑨ 완전히 몰입되었다). 영화를 본 경험은 기존 연구에서 영상물 시청의 정서적 경험의 강도를 높여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어(Gross & Levenson, 1995) 본 연구에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4. 분석 및 결과

1) 적절한 영상의 선정

영상물 중에서 각각의 정서를 대표할 수 있는 최적의 영상물들을 선택하기 위해 두 가지 요소를 고려했다. 첫째는 각각의 영상이 목표로 한 기본 정서를 불러일으킨 강도이며, 둘째는 목표 정서 외의 다른 기본 정서들과의

차별성, 즉 순수성을 기준으로 했다. 먼저 각 영상물별로 목표 정서가 그 외의 다른 기본 정서보다 낮게 평가된 경우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 대상이 되었던 24개의 영상물들 중 목표 정서가 다른 기본 정서보다 낮게 평가된 경우는 없어 연구자들의 1차 영상물 수집은 적절하게 수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각 영상물별로 목표 정서에 대한 측정치를 비교했다. <표 2>를 살펴보면 대략 목표 정서에 대한 평가가 높을수록 표준편차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어떤 정서를 강도 높게 이끌어 낼 때 순수한 정서 발현의 응집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목표 정서의 순수한 발현을 더욱 엄격하게 평가하기 위하여 통계 분석을 실시했다. 목표 정서와 다른 기본 정서와의 차별성 검증을 위하여 각 영상물별로 네 기본 정서를 독립변인으로 하여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시행했다. 목표 정서에 대한 평가치가 높은 영상물부터 낮은 순으로 분석했으며, 분산분석이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면, 본페로니(Bonferroni) 사후검정을 실시했다. 사후 검정에서 목표 정서와 다른 기본 정서들 중 하나라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으면 선정에서 제외했다. 최적의 영상물은 각 정서별로 두 개씩 선정했다.

<표 2> 목표 정서 평가치

기쁨	براوب-기쁨	라디오	허둥구	이발사-기쁨	마돈나	로빈
평균(표준편차)	6.63(1.72)	6.62(2.00)	6.53(2.00)	6.46(2.05)	6.28(2.16)	5.03(2.14)
슬픔	마음이	엄마	가족-슬픔	선물	말순씨	여친
평균(표준편차)	7.72(1.14)	7.31(1.67)	7.21(1.52)	7.19(1.70)	6.94(1.95)	6.78(1.66)
분노	가족-분노	이발사-분노	싸움	밀양	براوب-분노	전태일
평균(표준편차)	7.25(1.57)	6.93(2.03)	6.63(1.82)	6.49(2.06)	6.34(2.03)	6.26(1.94)
공포	장화	추격자	기담	드미	해부학	아랑
평균(표준편차)	7.46(1.73)	7.12(2.01)	7.07(2.17)	7.04(2.06)	6.82(2.28)	6.69(2.43)

주: 선정된 영상물은 굵은 글자체로 표시했음.

기쁨 정서에서는 영상물들 중, ‘브라보-기쁨’과 ‘라디오’가 가장 기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다른 정서와의 차별성 평가를 위한 반복측정 분산분석과 사후검정에서 전부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최종 선정했다. 슬픔 정서에서는 ‘마음’과 ‘엄마’가 가장 슬픈 것으로 평가되었고, 반복측정 분산분석과 사후검정을 차례로 통과하여 최종 영상물로 선정했다. 분노 정서에서는 ‘가족-분노’가 가장 화나는 것으로 평가되었지만, 사후검정 결과 슬픔 평가치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영상물 ‘가족-분노’는 분노뿐만 아니라 슬픔도 비슷한 수준에서 유발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제외했다. 다음으로 ‘이발사-분노’와 ‘싸움’이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되었고, 반복측정 분산분석과 사후검정을 통과하여 최종 선정했다. 공포 정서에서는 ‘장화’가 가장 무서운 것으로 평가되었고, 반복측정 분산분석과 사후검정도 통과하여 우선 선정했다. 두 번째로 높은 평가를 받았던 ‘추격자’는 사후검정에서 분노 평가치와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아 제외했다. 세 번째로 높은 평가를 받았던 ‘기담’이 사후검정을 통과하여 최적의 영상물로 선정되었다.

기본 정서를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최적의 영상물을 선정한 다음, 그 선정의 유효성을 살펴보았다. 먼저 군집분석을 통해 각 정서별로 선정된 두 개의 영상물이 유사하며 동시에 다른 정서의 영상물들과 차별화되는지를 평가했다. 여덟 개의 영상물을 독립변인으로 선정하고 기쁨, 슬픔, 분노, 공포를 분류변인으로 하여 계층적 군집분석을 실시했다. 분석결과 4단계(군집 수: 4개)의 계수 9.33과 5단계(군집 수: 5개)의 계수 42.83의 계수 차이가 커서 적절한 군집 수는 4개로 결정했다. 각각의 군집에 어떤 영상물들이 속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군집분석이 제공하는 수직 고드름표를 분석했다. 분석결과, 기본 정서별로 선정된 두 개의 영상이 각각의 군집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서별로 선정된 영상물들은 하나의 집단으로 분류되며 다른 집단과 차별화됨을 의미한다.

〈표 3〉 기본 정서 측정에 의한 소속 집단 예측

(단위: %)

개별 정서	예측 소속 집단				
	중성	기쁨	슬픔	분노	공포
중성	48.5	2.9	14.7	19.1	14.7
기쁨	2.2	86.8	1.5	8.8	.7
슬픔	7.4	.7	89.0	.7	2.2
분노	10.3	3.7	2.9	80.1	2.9
공포	3.7	3.7	1.5	5.2	85.9

주: 5개의 집단 분류에서 평균 81.3%가 예측한 대로 분류되었음.

군집분석 결과를 토대로 각 정서별 두 개의 영상물을 하나의 단위로 묶은 다음, 선정된 영상물들이 실험 참가자들에게서 목표 정서를 공통적으로 이끌어낸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판별분석을 실시했다. 판별변인은 기본 정서에 대한 평가치로 하였으며, 4개 정서 외에 중성 조건을 포함하여 실시했다. 중성 조건은 칼라바를 본 후 응답한 내용으로 평가했다. 분석결과 영상물들은 평균 81.3%의 피험자들에서 목표 정서를 유발하였으며, 중성을 제외한 다른 정서들은 80% 이상의 예측률을 기록했다. 그 내용은 〈표 3〉에 나타나 있다. 이는 상당히 높은 예측률로 본 연구의 영상물들이 적절하게 선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기본 정서의 체계화

기본 정서를 발현할 수 있는 적절한 영상물을 선정한 다음, 이를 통해 유발된 기본 정서를 정서 유인가와 접근-회피 동기의 조합을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기쁨은 접근 동기가 높은 긍정적 정서로, 슬픔은 회피 동기가 약하게 발현된 부정

적 정서로, 공포는 회피 동기가 높은 부정적 정서로, 분노는 접근 동기와 회피 동기가 동시에 발현된 부정적 정서로 개념화했다. 이 개념적 정의들의 적합성을 살펴보기 위한 분석을 시행했다. 먼저 정서 유인가와 접근-회피 측정값들이 상기의 개념화대로 체계적으로 구성되는지를 살펴보았고, 둘째로 판별 분석을 이용하여 정서 유인가에 접근-회피 동기를 변인으로 추가하였을 때 가져오는 효과를 살펴보았다.

정서 유인가로 기본 정서를 범주화하면, 기쁨은 긍정적 정서로, 슬픔·분노·공포는 부정적 정서로 분류된다. 정서 유인가 평가에 대해 기본 정서(중성 포함)를 독립변인으로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었다(긍정성, $F(4,268) = 220.54$, $p < .001$, partial $\eta^2 = .77$; 부정성, $F(4,268) = 86.72$, $p < .001$, partial $\eta^2 = .57$). 본페로니 사후검정을 통해 정서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4>에 정리되어 있다. 이를 토대로 기본 정서들을 평가하면 기쁨은 긍정성이 가장 높게, 부정성이 가장 낮게 나타나 긍정적 정서로 분류된다. 공포는 이와 반대의 양상을 띠어 부정성은 가장 높게, 긍정성은 가장 낮게 나타나 부정적 정서로 분류된다. 슬픔의 경우 부정성은 중성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고, 긍정성은 중성보다 낮게 나타났다. 슬픔이 부정성 평가에서 중성과 차

<표 4> 정서 유인가와 각성

	중성	기쁨	슬픔	분노	공포
긍정성	2.47(1.92) _b	7.18(1.51) _a	1.77(1.09) _c	2.48(1.58) _b	1.81(1.02) _c
부정성	4.06(2.58) _b	1.93(1.47) _c	3.68(2.41) _b	6.60(1.85) _a	6.25(2.01) _a
각성	3.00(2.24) _{cd}	5.31(1.97) _a	2.43(1.68) _d	3.09(2.01) _c	4.18(2.34) _b

주: 괄호 안의 숫자는 표준편차임. 각 측정값 오른쪽에 표시된 알파벳 첨자는 사후검정에서의 유의미한 차이를 표시하기 위한 것이며 동일한 첨자를 공유하지 않는 경우는 최소한 .05 유의도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냄. 첨자 a, b, c는 평균값의 크기 순서에 따라 지정하였음.

별을 보이지 않은 것은 중성 영상물에 대한 평가가 약간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것을 감안하면 슬픔은 부정적 정서로 분류된다. 분노는 부정성에서 공포와 유사한 수준으로 높게 평가 되었고, 긍정성은 중성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분노도 부정적 정서로 분류되지만, 긍정성의 결과는 분노가 공포와 차별적임을 나타낸다. 각성 수준도 유의미한 정서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도출하였는데($F(4,268) = 35.46, p < .001, \text{partial } \eta^2 = .35$), 사후검정의 결과는 역시 <표 4>에 정리되어 있다.

접근-회피 동기로 기본 정서를 범주화하면, 기쁨은 접근 동기가 높고, 공포는 회피동기가 높으며, 슬픔은 약한 회피 동기를 보일 것이며, 분노는 접근 동기와 회피 동기가 공존하지만 적대적인 대상에 접근하려는 동기가 우세할 것으로 판단된다. 접근-회피 동기 측정에 맞추어 접근 동기가 높은 순서대로 나열하면, 기쁨>분노>중성>슬픔>공포 순이 될 것이다. 접근-회피 동기 측정에 이용된 세 항목(개입성, 대처성, 행동성)의 신뢰성 계수(Cronbach's Alpha)는 0.79로 매우 우수한 수준이라고 할 수는 없어 분석은 세 항목을 개별적으로 시행했다. 기본 정서에 대한 개입성의 반복측정 분산분석은 유의미했다($F(4,268) = 66.01, p < .001, \text{partial } \eta^2 = .50$). 본페로니 사후검정을 통해 정서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으며 그

<표 5> 접근-회피 동기와 몰입

	중성	기쁨	슬픔	분노	공포
개입성	3.31(2.25) _b	7.09(1.80) _a	3.67(2.43) _b	4.05(2.35) _b	2.37(2.00) _c
대처성	5.13(2.30) _b	7.01(1.83) _a	3.32(1.81) _c	4.29(2.08) _b	2.80(1.88) _c
행동성	3.02(2.52) _d	6.13(2.11) _a	4.02(2.13) _c	4.60(2.15) _b	3.43(2.08) _{cd}
몰입	3.34(2.22) _c	6.63(1.92) _a	6.65(1.76) _a	5.89(1.86) _b	6.44(2.09) _a

주: 괄호 안의 숫자는 표준편차임. 각 측정값 오른쪽에 표시된 알파벳 첨자의 의미는 <표 4>와 동일함.

결과는 <표 5>에 정리되어 있다. 이를 정리해 보면 기쁨>분노=슬픔=중성>공포 순으로 나타났다.²⁾ 대처성에 대한 반복측정 분산분석도 유의미하였으며($F(4,268)=63.47, p<.001, \text{partial } \eta^2=.49$), 사후검정 결과는 기쁨>중성=분노>슬픔=공포 순으로 나타났다(<표 5>). 행동성에 대한 반복측정 분산분석도 유의미하였으며($F(4,268)=31.47, p<.001, \text{partial } \eta^2=.32$), 사후검정 결과는 기쁨>분노>슬픔=공포&공포=중성(슬픔>중성)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해 보면 편차는 존재하지만, 전반적으로 접근-회피 동기는 기쁨>분노>중성>슬픔>공포 순으로 체계화될 수 있음이 드러난다. 다음으로 몰입 정도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는 접근-회피 동기가 영상물에 주의를 기울이는 몰입 정도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닌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몰입 정도에 대한 반복측정 분산분석은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했다($F(4,264)=49.61, p<.001, \text{partial } \eta^2=.43$). 사후검정 결과를 살펴보면 몰입 정도가 높은 순서부터 슬픔=기쁨=공포>분노>중성으로 나타나 기본 정서의 체계적 차별성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정서 유인가로 기본 정서를 판별했을 때와 접근-회피 동기를 추가하여 판별했을 때를 비교했다. 정서 유인가만을 판별변인으로 투입하였을 때(<표 6>)와 정서 유인가와 접근-회피 동기들을 함께 판별 변인으로 투입하였을 때(<표 7>)를 비교해 보면, 소속 집단의 평균 예측은 55.2%에서 63.3%로 증가했다. 그 차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표 6>에서는 분노와 공포의 예측률이 비슷하여 차별성이 높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표 7>에서는 접근-회피 동기의 추가로 인하여 분노와 공포의 차별성이 많이 증가된 것을 알 수 있다.

2) 나열한 순서는 크기 순이며 ‘>’는 사후검정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는 사후검정에서 유의미하지 않은 차이를 나타낸다.

〈표 6〉 정서 유인가 측정에 의한 기본 정서의 판별 분석 (단위: %)

개별 정서	예측 소속 집단				
	중성	기쁨	슬픔	분노	공포
중성	11,8	17,6	36,8	13,2	20,6
기쁨	,7	96,3	,0	,7	2,2
슬픔	14,0	3,7	58,8	7,4	16,2
분노	7,4	5,1	5,1	47,8	34,6
공포	10,4	,7	18,5	31,1	39,3

주: 다섯 개의 집단 분류에서 평균 55,2%가 예측한 대로 분류되었음.

〈표 7〉 정서 유인가와 접근-회피 동기의 조합 측정에 의한 기본 정서의 판별 분석 (단위: %)

개별 정서	예측 소속 집단				
	중성	기쁨	슬픔	분노	공포
중성	47,1	13,2	11,8	13,2	14,7
기쁨	2,2	94,1	,7	,0	2,9
슬픔	8,1	2,2	58,1	13,2	18,4
분노	5,9	5,1	5,9	53,7	29,4
공포	8,1	,7	18,5	17,0	55,6

주: 5개의 집단 분류에서 평균 63,3%가 예측한 대로 분류되었음.

5. 결론 및 토론

본 연구는 한국 문화를 배경으로 한 정서 관련 연구에서 널리 이용될 수 있는 적절한 영상물을 제시하고 있으며, 영상물 시청에서 발현될 수 있는 정서적 경험을 간략하면서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이론적 틀의 가능성을 모색했다. 영상물은 정서 분류의 원형이 된다고 판단되는 기본 정서, 즉 기쁨, 슬픔, 분노, 공포를 발현시킬 수 있는 내용을 선정했다.

한편, 발현된 기본 정서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이해하기 위해 최근에 제시된 정서-유인가와 접근-회피 동기의 조합이라는 이론적 틀을 적용하여 분석했다. 그 결과들을 영상물의 선정 과정과 그 이론적 틀의 적용 과정으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1) 적절한 영상물의 선정

1차 수집된 영상물들 중에서 기본 정서(기쁨, 슬픔, 분노, 공포)의 유도에 가장 적절한 영상물의 선정은 정서 발현의 강도와 순수성을 기준으로 했다. 그 과정은 영상물을 선정할 때 기본 정서를 순수한 형태로 이끌어내는지에 대한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각 영상물의 목표 정서에 대한 평가에서 대체로 그 발현 강도가 높을수록 표준편차가 작아져 응집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것이 순수성을 항상 보장하지는 않았다. 예컨대, 분노 조건에서 가장 화가 난다고 평가되었던 ‘가족-분노’ 영상물은 사후검정 결과 분노와 공포에 대한 평가 사이에 유의미한 차별성이 없었다. 분노 조건에서는 이외에도 ‘전태일’과 ‘밀양’의 사후검정에서 분노와 공포 평가 사이에 유의미한 차별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연구에서 분노는 영상을 통해 공통적으로 이끌어내기가 난해한 정서로 보고된 내용과 일치한다(Philippot, 1993). 하지만 분노 조건에서 순수성이 담보된 것으로 선정된 영상물들은 판별 분석에서 실험 참가자들의 80%가 맞게 예측하여 엄격하고 세심한 기준으로 선택을 하면 영상을 통해서도 충분히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형태의 분노를 유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공포 조건에서도 목표 정서가 두 번째로 높게 평가되었던 ‘추격자’가 사후검정에서 분노와 공포 평가 사이에 유의미한 차별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특히 공포와 분노 영상물을 선정할 때 차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세심한 선정 과정을 거쳐 제시된 본 연구의 영상물들은 많은 정서 관련 연구에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선정된 영상물들이 이용될 수 있는 정서와 관련된 영상 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영상을 통한 정서 연구로, 이는 반응 일관성 가설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어 연구 간 상호 비교가 중요한 영역이다. 연구 간 상호 비교를 통해서 부각되는 기본 정서의 일관된 차별성 혹은 차별성을 회색하는 맥락적 간섭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표준화된 영상물 이용이 적합하며, 본 연구의 영상물들은 이런 목적에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

둘째, 정서적인 내용이 영상물 시청의 인지과정에 미치는 영향이다. 정서적인 내용이 미치는 영향에 관한 미디어 연구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정서적인 영상과 광고를 동반 시청할 때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상호작용이 있다. 기존에 이와 관련된 연구들은 정서적인 영상을 본 후, 혹은 보는 동시에 광고를 제시하였을 경우에 일어나는 다양한 상호작용을 주로 각성이나 정서 유인가 측면에서 많이 연구했다. 이런 경향을 탈피하여 개별 정서의 영향에 관한 연구들이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되었으나(DeSteno, Petty, Rucker, Wegener, & Braveman, 2004) 아직 이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영상물들은 다양한 정서를 유도하는 영상물이 광고의 수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

2) 기본 정서의 체계화

본 연구는 기본 정서를 체계적으로 유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정서 유인가와 접근-회피 동기의 조합이라는 새로운 시도를 적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대체로 정서 유인가와 접근-회피 동기의 조합으로 기본 정서의

유형화와 차별성에 대해 이론적 체계화가 가능하다는 증거를 제시한다. 하지만 접근-회피 동기 측정의 결과는 분노, 중성, 슬픔의 구분에서 항목별로 편차를 보이며, 확연한 차별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 이유로 고려해 볼 수 있는 것들에는 몇 가지가 있다.

첫째, 영상물 시청을 통한 분노나 슬픔의 유도는 그 차이를 분명히 드러내지 못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분노는 복합적인 정서로, 슬픔이나 우울과 같은 정서가 심화되어 정신적으로 교란되면 분노를 경험하게 된다고 한다(Lazarus, 1991). 실제 경험에서도 분노와 슬픔의 경계가 모호할 수 있는데, 영상물 시청을 통한 간접 경험에서는 그 모호함이 더욱 커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정이 가능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 시행한 접근-회피 동기의 측정 방법의 불완전성이다. 본 연구에서는 영상물 시청이라는 상황을 고려하여 접근-회피 동기를 개입성, 행동성, 대처성의 항목으로 구성하여 측정했다. 이들은 근접-회피 동기를 측정하기 위하여 처음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의 여지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분노, 중성, 슬픔의 차별성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것은 연구 대상의 규모가 충분하지 않아 생겨났을 가능성이 있다. 예컨대 개입성, 행동성, 대처성을 통합하여 접근-회피 동기로 반복측정 분석을 하면 그 결과는 유의미하며($F(4,268)=78.13, p<.001, \text{partial } \eta^2=.54$), 그 크기는 기쁨(6.74, $SD=1.29$), 분노(4.32, $SD=1.41$), 중성(3.82, $SD=2.14$), 슬픔(3.67, $SD=1.32$), 공포(2.87, $SD=1.51$) 순으로 나타나 접근-회피 동기의 예측과 일치한다. 하지만 본페로니 사후검정을 이용하면 분노, 중성, 슬픔 간의 차별성은 유의미하지 않으며, 이는 분노, 중성, 슬픔 간의 차이가 불분명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하지만, 사후검정 방법에서 상대적으로 덜 보수적인 최소유의차(least significant difference) 검정을 이용하

면 분노는 중성이나 슬픔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중성과 슬픔 간에 차별성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기존 연구에서도 보고된 바 있어(Lee & Lang, 2009), 이 점을 고려하면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접근-회피 동기 측정 방법은 연구 규모를 확대하면 충분히 차별성을 드러낼 것이라는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 이와 관련된 지속적인 후속연구가 필요하며, 더욱 다양한 항목들과의 상관관계 분석과 뇌파 혹은 생리적 반응과 같은 다른 측정 방법과의 연계를 통해 현재의 자가보고 측정방법의 타당성에 관한 검토도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한편, 추후 연구를 통한 개선을 위해 본 연구가 가지는 몇 가지 제한점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본 연구는 실험이라는 연구방법의 일반적인 한계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즉 현실과 달리 지극히 통제된 실험실 상황과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 표본 선정 등의 한계를 갖고 있다. 둘째, 영상물의 선정을 위해 한국 영화를 전수 조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목표로 정한 정서의 발현에 더욱 적절한 영상물이 존재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는 네 개의 기본 정서만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그 외에도 다양한 개별 정서 연구를 위해서는 더욱 포괄적인 영상물 선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본 연구에서는 긍정적인 정서를 기쁨만으로 제한하였는데, 만족감, 자긍심, 희망, 사랑 등의 세부적인 긍정적 정서들을 포함하여 살펴볼 수 있다. 이런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각종 정서 연구에서 이용될 수 있는 영상물들을 선정하여 제시하고 정서 유인가와 접근-회피 동기의 결합이라는 새로운 이론적 틀을 모색해 미디어 분야에서 정서 연구의 저변 확대와 체계적 발전에 공헌할 것이라 기대된다.

■ 참고문헌

- 김정현 · 이명천 · 김지은(2008). 프로그램 분위기와 프로그램 관여도에 따른 PPL 효과 연구. 『광고연구』, 60호, 65~85.
- 양 윤 · 성충모(2001). 영화에서의 PPL 광고효과측정: 영화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과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광고연구』, 53호, 135~154.
- 이영창 · 장은혜 · 정순철 · 손진훈(2007). 시청각 동영상에 의해 유발된 부정적 감성에 따른 자율신경계 반응. 『감성과학』, 10권 3호, 471~480.
- 이준웅 · 송현주 · 나은경 · 김현석(2008). 정서 단어 분류를 통한 정서의 구성 차원 및 위계적 범주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52권 1호, 85~116.
- Aristotle. (ancient/1984). *The rhetoric and the poetics of aristotle*(W. R. Roberts & I. Bywater, Trans.). New York, NY: Random House Inc. (Original work published ancient).
- Averill, J. R. (1969). Autonomic response patterns during sadness and mirth. *Psychophysiology*, 5, 399~414.
- Bowlby, J. (1980). *Attachment and loss volume III: Loss, sadness and depression*. New York, NY: Basic Books.
- Bradley, M. M., & Lang, P. J. (1994). Measuring emotion: The self-assessment manikin and the semantic differential. *Journal of Behavior Therapy and Experimental Psychology*, 25, 49~59.
- Britton, J. C., Taylor, S. F., Berridge, K. C., Mikels, J. A., & Liberzon, I. (2006). Differential subjective and psychophysiological responses to socially and nonsocially generated emotional stimuli. *Emotion*, 6(1), 150~155.
- Brown, W. A., Corriveau, D. P., & Monti, P. M. (1977). Anger arousal by a motion picture: A methodological not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34, 930~931.
- Cacioppo, J. T., & Gardner, W. L. (1999). Emotion. *Annual Reviews: Psychology*, 50, 191~214.
- Cacioppo, J. T., Gardner, W. L., & Berntson, G. G. (1999). The affect system has parallel and integrative processing components: Form follows fun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1(1),

3 ~ 25.

- Carver, C. S. (2004). Negative affects deriving from the behavioral approach system. *Emotion*, 4(1), 3 ~ 22.
- Christie, I., & Friedman, B. (2004). Autonomic specificity of discrete emotion and dimensions of affective space: A multivariate approach.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physiology*, 51, 143 ~ 153.
- Darwin, C. (1965). *The expression of the emotions in man and animals*.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Davidson, R. J. (1995). Cerebral asymmetry, emotion, and affective style. In R. J. Davidson & K. Hugdahl (Eds.), *Brain asymmetry* (pp. 361 ~ 387). Cambridge, MA: MIT Press.
- DeSteno, D., Petty, R. E., Rucker, D. D., Wegener, D. T., & Braveman, J. (2004). Discrete emotions and persuasion: The role of emotion-induced expectanc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6(1), 43 ~ 56.
- Ekman, P. (1992). An argument for basic emotions. *Cognition and Motivation*, 6, 169 ~ 200.
- Ekman, P., Levenson, R. W., & Friesen, W. V. (1983). Autonomic nervous system activity distinguishes among emotions. *Science*, 221, 1208 ~ 1210.
- Ellsworth, P. C., & Smith, C. A. (1988). From appraisal to emotion: Differences among unpleasant feelings. *Motivation and Emotion*, 12(3), 271 ~ 302.
- Epstein, S. (1984). Controversial issues in emotion theory. In P. Shaver (Eds.), *Review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5, pp. 64 ~ 88). Beverly Hills, CA: Sage.
- Fernández-Dols, J., Sánchez, F., Carrera, P., & Ruiz-Belda, M. (1997). Are spontaneous expressions and emotions linked: An experimental test of coherence. *Journal of Nonverbal Behavior*, 21(3), 163 ~ 177.
- Frijda, N. H. (1986). *The emotions*.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ross, J. J., & Levenson, R. W. (1995). Emotion elicitation using films. *Cognition & Emotion*, 9(1), 87 ~ 108.
- Hagemann, D., Naumann, E., Maier, S., Becker, G., Lürken, A., & Bartussek,

- D.(1999). The assessment of affective reactivity using films: Validity, reliability, and sex difference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6, 627 ~ 639.
- Harmon-Jones, E.(2004). On the relationship of frontal brain activity and anger: Examining the role of attitude toward anger. *Cognition and Emotion*, 18(3), 337 ~ 361.
- Harmon-Jones, E., & Sigelman, J.(2001). State anger and prefrontal brain activity: Evidence that insult-related relative left prefrontal activation is associated with experienced anger and agg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0, 797 ~ 803.
- Harmon-Jones, E., & Sigelman, J., Bohlig, A., & Harmon-Jones, C.(2003). Anger, coping, and frontal cortical activity: The effect of coping potential on anger-induced left frontal activity. *Cognition and Emotion*, 17, 1 ~ 24.
- Harmon-Jones, E., Vaughn-Scott, K., Mohr, S., Sigelman, J., & Harmon-Jones, C.(2004). The effect of manipulated sympathy and anger on left and right frontal cortical activity. *Emotion*, 4(1), 95 ~ 101.
- Inglehart, R., & Klingemann, H. D.(2000). Genes, culture, democracy, and happiness. In E. Diener & E. M. Suh(Eds.), *Culture and subjective well-being*(pp.165 ~ 183). Cambridge, MA: MIT Press.
- Izard, C. E.(1977). *Human emotions*. NewYork, NY: Plenum Press.
- Keltner, D., & Gross, J. J.(1999). Functional accounts of emotions. *Cognition and Emotion*, 13(5), 467 ~ 480.
- Kreibig, S. D., Wilhelm, F. H., Roth, W. T., & Gross, J. J.(2007). Cardiovascular, electrodermal, and respiratory response patterns to fear-and sadness-inducing films. *Psychophysiology*, 44, 787 ~ 806.
- Lang, P. J.(1988). What are the data of emotion? In V. Hamilton, H. B. Gordon, & Frijda, N. H.(Eds.), *Cognitive perspectives on emotion and motivation*(pp.173 ~ 191). Dordrecht, Netherlands: Kluwer Academic Publishers.
- Lang, P. J., Bradley, M. M., & Cuthbert, M. M.(1997). Motivated attention: Affect, activation and action. In P. J. Lang, R. F. Simons, & M. Balaban(Eds.), *Attention and orienting: Sensory and motivational processes*(pp.97 ~ 135). Hillsdale, NJ: Erlbaum.
- Lang, P. J. Davis, M., & Öhman, A.(2000). Fear and anxiety: Animal models

- and human cognitive psychophysiology.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61, 137 ~ 159.
- Lazarus, R. S.(1991). *Emotion and adapta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Little, L.(1988). Anger in monastic curses. In B. Rosenwein(Eds.). *Anger's past*(pp.9 ~ 35).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 Lee, S., & Lang, A.(2009). Discrete emotion and motivation: Relative activation in the appetitive and aversive motivational systems as a function of anger, sadness, fear, and joy during televised information campaigns. *Media Psychology*, 12, 148 ~ 170.
- Matsumoto, D., Consolacion, T., Yamada, H., Suzuki, R., Franklin, B., Paul, S., et al.(2002). American-Japanese cultural differences in judgements of emotional expressions of different intensities. *Cognition and Emotion*, 16(6), 721 ~ 747.
- Mauss, I. B., Levenson, R. W., McCarter, L., & Wilhelm, F. H.(2005). The tie that binds? Coherence among emotion experience, behavior, and physiology. *Emotion*, 5(2), 175 ~ 190.
- McHugo G. J., Smith, G. A., & Lanzetta, J. T.(1982). The structure of self-reports of emotional responses to film segments. *Motivation and Emotion*, 6(4), 365 ~ 385.
- Ortony, A., Clore, G. L., & Collins, A.(1988). *The cognitive structure of emoti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alomba, D., & Stegagno, L.(1993). Physiology, perceived emotion, and memory: Responding to film sequences. In N. Birbaumer & A. Ohman(Eds.). *The structure of emotion*(pp.156 ~ 167). Seattle: Hogrefe & Huber Publishers.
- Philippot, P.(1993). Inducing and assessing differentiated emotion-feeling states in the laboratory. *Cognition & Emotion*, 7(2), 171 ~ 193.
- Philippot, P., & Chappelle, G.(2002). Respiratory feedback in the generation of emotion. *Cognition & Emotion*, 16(5), 605 ~ 627.
- Roseman, I. J., Antoniou, A. A., & Jose, P. E.(1996). Appraisal determinants of emotions: Constructing a more accurate and comprehensive theory. *Cognition and Emotion*, 10(3), 241 ~ 277.
- Russell, J. A.(1994). Is there universal recognition of emotion from facial

- expressions? A review of the cross-cultural studies. *Psychological Bulletin*, 115, 102 ~ 141.
- Russell, J. A. (2003). Core affect and the psychological construction of emotion. *Psychological Review*, 110, 145 ~ 172.
- Russell, J. A., & Feldman Barrett, L. (1999). Core affect, prototypical emotional episodes, and other things called emotion: Dissecting the elepha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6, 805 ~ 819.
- Schwartz, G. E., Weinberger, D. A., & Singer, J. A. (1981). Cardiovascular differentiation of happiness, sadness, anger, and fear following imagery and exercise. *Psychosomatic Medicine*, 43(4), 343 ~ 364.
- Shaver, P., Schwartz, J., Kirson, D., & O'Connor, C. (1987). Emotion knowledge: Further exploration of a prototype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6), 1061 ~ 1086.
- Shaver, P. R., Wu, S., & Schwartz, J. C. (1992). Cross-cultural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emotion and its representation: A prototype approach. In M. S. Clark (Eds.), *Emotion: Review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13, pp. 175 ~ 212). Newbury Park, CA: Sage.
- Silberman, E. K., & Weingartner, H. (1986). Hemispheric lateralization of functions related to emotion. *Brain and Cognition*, 5, 322 ~ 353.
- Stearns, C. Z. (1988). "Lord help me walk humbly": Anger and sadness in England and America, 1570 ~ 1750. In C. Z. Stearns & P. N. Stearns (Eds.), *Emotion and social change* (pp. 39 ~ 68). New York, NY: Holmes & Meier.
- Tomkins, S. S. (1963). Affect theory. In K. R. Scherer & P. Ekman (Eds.), *Approaches to emotion* (pp. 163 ~ 195).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Tsai, J. L., Levenson, R. W., & Carstensen, L. L. (2000). Autonomic, subjective, and expressive responses to emotional films in older and younger Chinese Americans and European Americans. *Psychology and Aging*, 15(4), 684 ~ 693.
- Turner, T. J., & Ortony, A. (1992). Basic emotions: Can conflicting criteria converge? *Psychological Review*, 99, 566 ~ 571.
- Waldstein, S. R., Kop, W. J., Schmidt, L. A., Hauffer, A. J., Krantz, D. S., & Fox, N. A. (2000). Frontal electrocortical and cardiovascular reactivity during happiness and anger. *Biological Psychiatry*, 55, 3 ~ 23.

- Zillmann, D.(1991). Television viewing and physiological arousal. In J. Bryant and D. Zillmann(Eds.), *Responding to the screen: Reception and reaction processes*(pp, 103 ~ 133). Hillsdale, New Jersey: LEA.
- Zillmann, D.(1994). Mechanisms of emotional involvement with drama. *Poetics*, 23, 33 ~ 51.

Abstract

Selecting Film Excerpts Optimal for Eliciting Basic Emotions and the Systematic Understanding of the Evoked Emotional Experiences

Seung-Jo Lee

Assistant professor

Dept. of Mass Communication, Chung-Ang University

Nam-Do Choi

Dept. of Mass Communication, Chung-Ang University

This study seeks to select video clips appropriate for eliciting basic emotions such as joy, sadness, fear, and anger, and examines potential for a theoretical frame which provides simple and systematic understanding of basic emotions. For these purpose, initially, over 90 films were searched to collect a total of 24 clips, six for each basic emotion. The video clips were evaluated in the aspects of intensity and discreteness by using a repeated-measure experimental design, and then two best clips were selected for each emotion. After examining the effectiveness of the selection process, we analyzed emotional experiences of watching the clips with a theoretical frame which adopts the combination of valence and approach-avoidance motivation. We provide some evidence that the combination of valence and approach-avoidance motivation could be useful

in developing a new theoretical frame which explains and categorizes discrete emotions in a systematic way.

Key words : film excerpts, basic emotions, emotional valence, approach-avoidance motivation, arousal